

# HOLY HABIT MOVEMENT PART 1

## 1. 뜻을 정함

### 1. 나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각각 한 문장으로 적어 봅시다.

-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음식을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고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짓는 근본적인(essential) 성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를 변화된 정체성을 지닌 새로운 피조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고후5:17 / 골1:13). 더불어 구원의 감격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를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사 43:21)로 그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 **나의 정체성** :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예배자, 빛과 소금 등등 다양한 응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열린 질문이기에 왜 그러한 답변을 했는지 충분한 나눔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장 뚜렷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벤전 2장 9-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소리 내어 읽으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 **삶의 목적** : 삶의 목적은 정체성과 관련된 물음입니다. 내가 어떠한 삶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냐에 따라 삶의 목적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인생의 정체성은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기에 뜻을 정하여 우상 숭배 문화를 거스르며 기도하는 인생,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에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사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점검하도록 합니다.

## 2. 뜻을 정하고 내가 지켜야 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뜻을 정하였습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왕의 음식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뜻을 정한다'라는 것은 나의 정서와 의지, 지성의 모든 마음을 그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두는 것이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뜻을 정해야 하는 영역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나의 정서와 의지, 지성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살펴보고 현재 내가 어떠한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참고)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성도의 삶에 있어 가치 있는 것이라 설명합니다.

- \*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맘 다해 그분을 예배하는 것(마 22:37)
- \* 이웃을 사랑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미 6:8)
- \*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르는 것(요 17:17)
- \*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벧전 1:15-16)
- \* 복음을 전파하는 것(마 28:19-20)

## 3.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지금 달리고 있는 이 길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라고(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다니엘은 심플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 목적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매일의 여정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채워나가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와 그분의 영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그분을 누리고 기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천국을 가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요 17:3)
-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지? 사사로운 눈앞의 이익을 위해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4.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시대 사회, 일터, 가정, 학교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다니엘은 바벨론에 온 것이 우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한가운데에서 우상 숭배 문화를 거스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러하기에 뜻을 정하며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 다니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는 오늘 하루라는 시간이 허락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분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고전 10:31)
  -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향기(고후2:15)’요, ‘그리스도의 편지(고후 3:2)’ 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캠퍼스와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 

5. 위의 2번과 3번의 답변이 일치하나요? 일치하지 않는다면 나의 목표를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까요?

- 어떠한 것이 있어야 할 제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안정감이 있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알고 있는 신앙 지식이 정보로만 끝나지 않고, 내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 1. 다니엘은 왜 왕이 내어 준 음식을 먹지 않았나요?

-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내어준 음식을 먹지 않은 이유는, 바벨론 포로의 신분임에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 다시 말해 자신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순종 때문에 왕이 내어준 음식을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왕이 제공한 음식과 음료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정결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레 11장/신 14장). 이방 신에게 바쳐졌던 것이므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 2.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어떤 것을 거절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 순종에 관한 은혜로운 나눔이지만, 개인의 자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ex. 부정직한 이득 거절(거짓말), 주일 성수를 위한 세상 관계와의 타협 거절(우선순위), 지나친 과소비나 사치를 거절(욕심) 등).
- 자녀의 예시(ex. 친한 친구가 시험 시간에 답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정직하게 거절했던 것, 주일에 스키 캠프를 가자고 했던 친구의 제안을 거절했던 것, 비싼 스마트폰이 필요하지 않아 부모님을 졸라서 사지 않았던 것.)

### 3.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알고는 있지만 도저히 거절하기 힘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불순종에 관한 나눔이므로, 무거운 주제도 좋지만 가벼운 주제로 나누는 것도 괜찮습니다. (ex. 인정이나 명예욕(자만), 이기적인 삶(남에 대한 무관심), 신앙적 타협(우선순위), 평안이 아닌 안락함 추구(평안이 아닌 편안함), 분노와 보복의 감정(복수) 등).
- 자녀의 예시(ex. 다른 친구를 조롱하는 것으로 친구들을 웃기려 하는 것, 밤새 게임을 하며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유튜브와 SNS로 기도 시간을 미루는 것.)

---

4. 3번에 대한 가족의 답을 듣고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 나눔에 따라 자유롭게 나누되, 위로와 공감의 언어를 들려주세요.